

# 불황에... 경조사비·기부금 줄었다

## 2인 이상 가구간 이천지출 월 19만원...2분기 연속 감소

회사원 A(41)씨는 최근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예경사 관련 경조비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지인의 경조사를 찾는 것도 자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찾아졌다.

또 A씨는 신혼 때부터 매달 해왔던 복지단체 기부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딱딱한 살림살이가 계속되고 씬비가 늘다 보니 여쩔 수 없는 현실이다.

경기불황으로 가계의 경조사비와 기부금 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딱딱한 살림살이에 인심 쓸 여유가 없어지면서 관련 지출을 줄인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2분기(4~6월) '가구 간 이천지출'은 19만77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266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간 이천지출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 환자에 대한 송금 등이 포함되지만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사비 비중이 가장 높다.

가구 간 이천지출은 지난 1분기(1~3월)

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주요 항목인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도 지난 2분기에 10만3577원에 그쳐 1년 전보다 3.1%(3261원) 감소했다.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 가계가 경조사비나 기부 등의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증

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올해 2분기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0.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성장률도 올해 2분기에 0.8%를 기록, 1분기의 0.5%보다 올라갔지만 3분기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올해 2분기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0.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성장률도 올해 2분기에 0.8%를 기록, 1분기의 0.5%보다 올라갔지만 3분기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 대출 4년만에 40조 돌파

## 가계대출 2년간 85% 급증...비중 사상 최고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크게 늘어 4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부채의 질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0조785억원으로 작년 말(35조 5838억원)보다 4조4947억원(12.6%) 늘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40조원을 넘긴 것은 2012년 8월(40조4734억원) 이후 3년11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여신은 2010년 5월 65조7541억원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 구조조정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2014년 6월에는 27조5698억원으로 축소됐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기파르다.

지난 7월 저축은행 대출 잔액 중 기업 대출이 22조8570억원(57.0%)으로 가장 많고 가계대출은 16조6920억원(41.6%)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295억원은 공

공기관 등이 빌린 돈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2조9984억원(21.9%) 불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1조4929억원(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나 된다. 특히 가계대출 잔액은 2014년 7월 9조 341억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7조6579억원(84.8%) 급증했다. 저축은행 여신에서 가계대출 비중 41.6%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 수치는 2년 전인 2014년 7월(32.5%)에 견줘 9.1% 포인트나 올랐다.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부실사태를 거두고 나서 가계대출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의 여신심사사이드라인에 따른 '풍선 효과'와 저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

회은은 이달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비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수신 호조 등으로 대출 취급유인이 커진 데다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수요가 유입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광주광역시 청년상인육성과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2016 광주광역시 '청년상인경연대회'를 후원했다.

지난 24일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하며, 보해양조(주)가 후원하는 2016 광주광역시 '청년상인경연대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유정현 광주광역시청과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유관기관·사회단체장등과 함께 현장 심사위원에 나서며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격려했다.

보해양조는 후원상금 1000만원, 주류 및 부대비용 1000만원, 총 2000만원의 후원을 하며 지난 7월 광주광역시와 MOU 체결 이후 지역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보해양조(주) 임지선 대표는 "향토기업 보해양조가 지역내 청년들의 후원을 통해 양육기관이 지속적인 연대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와 SW융합 아이디어 찾습니다"

## 한전 다음달 13일까지 공모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국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융합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전남지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최대 프로젝트인 '에너지신산업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에너지와 SW 융합기술 아이디어'이다.

일반부는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지역전략산업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ICT 기반의 SW 융합 신제품·서비스, 학생부는 SW와 생활 속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3일까지 공모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예선을 거쳐 선정된 16개 팀·개인을 대상으로 본선심사를 해 11월 1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시상식은 11월 2일부터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행사기간에 시행되며 한국전력 사장상, 전라남도지사상, 등 상장과 상금 총1100만원을 수여한다.

앞서 한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SW 융합 클러스터 사업 공모에서



지역전략사업인 에너지신산업과 소프트웨어 등 ICT를 융합한 에너지신산업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바 있다.

| 당첨번호             | 2등보너스 숫자      |           |
|------------------|---------------|-----------|
| 1 28 35 41 43 44 | 31            |           |
| 등 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6개 숫자일치        | 2,273,767,360 | 8         |
|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75,792,246    | 40        |
| 3 5개 숫자일치        | 1,886,553     | 1,607     |
| 4 4개 숫자일치        | 50,000        | 84,770    |
| 5 3개 숫자일치        | 5,000         | 1,464,353 |

# 보해양조 "광주 청년상인 응원합니다" 경연대회 후원



# 우리은행 민영화 '4전5기' 결실 보나

## 한화생명·한국투자금융 등 투자자 18곳 몰려

시중은행 중 유일한 정부 소유 은행인 우리은행이 '4전5기' 끝에 민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3일 마감한 우리은행 지분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는 한화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보고펀드, 오릭스 등 18곳 이상의 투자자가 몰려 흥행몰이를 했다. 투자자는 지분을 8%까지 살 수 있는데, 8% 매입 희망자도 3~4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찰에 매각 물량인 30%를 훌쩍 뛰어넘는 수요가 몰렸지만, 참여자들이 실제 인수 의사를 갖고 본입찰까지 뛰어들지 여부가 관건이다.

예비입찰에는 성공했지만 '흥행'이 본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본입찰 직전에 써내는 예정 가격 이상으로 응찰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실제 지분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무난하게 진행되면 예보는 11월 중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주식 양·수도 및 대금납부 등 매각을 마칠 계획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한다. 예보는 지분 21%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가 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중심이 돼 경영을 하라는 의미다.

# 알람 울리면 점등...퇴근 맞춰 난방 작동

## LH, 올 착공 행복주택에 '스마트홈' 기술 시범 구축

"오전 6시 기상알람이 울리자 실내 조명이 자동으로 켜진다. 하루종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시간에는 가스와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미세먼지와 황사 등도 자동으로 걸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준다." 최신형 아파트에서 볼 수 있던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는 행복주택에도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선기반 IoT(사물인터넷)을 접목한 '행복주택 스마트홈'을 시범 구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LH는 우선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서울 공릉동 행복주택에 스마트홈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고양 장항지구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기존 스마트홈보다 진화된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스마트홈이 월패드 중심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었다면 행복 스마트홈은 스마트폰을 모든 IoT 스마트 허브와 서비스 기기들간의 무선 통신을 구성함으로써 우선 통신 배선과 와이파이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 광주·전남 남가발 프리모

대산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 비전타워 7~8층

##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입점 내과 성업중이며, 피부과 치과등 11월 오픈확정!
- 병원용 침상이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완비
- 주변 배후세대 5000여가구 밀집

7층 전용면적 453평 / 8층 전용면적 453평 (전체 면적도 가능 / 1칸씩 분양 및 임대도 가능)

**권장업종**

- 넓은 객실을 요하는 한방병원
- 아동 전문병원
- 업무용 사무실

분양가격 및 계약기간, 임차가격은 협의가능하며 매수인과 임차인 의견 적극수렴 합니다.

비전타워 분양 대행사 **비전공인증개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6호)

대표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